

월요논단



김명범  
행정학박사·제주공공문제연구소장

제주시 원도심은 지난 십수 년간 거대한 정책 실험실이었다. 수천여 원의 예산이 투입돼 축제가 열리고,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이 이어졌으며,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곳곳에 동지를 틀었다. 그러나 2026년 현재, 잔치가 끝난 원도심의 밤거리는 퇴근 시간만 지나면 가로등 조명이마저 무색할 만큼 적막감이 감돈다. 인구는 계속 빠져나가고, ‘임대 문’의 가늠은 빈 점포들 사이로 서터 내리는 소리만이 무겁게 울려 퍼진다. 이제는 인정해야 한다. 이벤트 위주의 단기 처방은 원도심의 체질을

탐동 도시재생 혁신지구, ‘개발’을 넘어 ‘도시의 연결’로

바꾸는 데 한계가 있음을 말이다. 그간의 정책 실패는 계획적 공간 설계가 아닌 일시적 유인책인 소프트웨어에만 매몰된 결과다. 축제는 방문객을 잠시 머물게 할 뿐, 사람을 살게 할 수는 없다. 원도심 부활의 핵심은 방문객 수가 아니라 정주 인구다. 삶과 일터, 휴식이 한 공간에서 이뤄지는 하드웨어적 구조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 어떤 화려한 콘텐츠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일 뿐이다. 이런 맥락에서 추진되는 ‘탐동 도시재생 혁신지구’는 원도심 부활을 위한 마지막 승부수다. 특히 이곳은 1980년대 후반 대규모 해안 매립 과정에서 바다의 사유화와 환경 파괴라는 상흔이 새겨진 제주 현대사의 아픈 현상이다. 그렇기에 이번 사업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을 넘어 과거의 잘못을 딛고 공간의 주권

을 진정으로 도민에게 돌려주는 ‘공공성 회복’의 과정이어야 한다. 또한 우리는 세련된 수변 도시의 대명사인 일본 요코하마 ‘미나토미라이 21’이 구도심의 활력을 독점하며 상권 양극화를 초래한 사례를 경계해야 한다. 막대한 행정과 예산이 투입된 공간이 주변의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된다면, 이는 재생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단절일 뿐이다. 거대 시설이 기존 지역사회의 숨통을 조이는 ‘빨대 효과’를 낳지 않도록 정교한 상생 설계가 선행돼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탐동이 원도심 전체에 혈액을 공급하는 진정한 심장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설계 원칙이 필수적이다. 첫째, 상권 공유형 보행 네트워크 설계다. 칠성로와 중앙로, 동문시장과 산지천을 잇는 물리적 동선을 최우선으로 확보해 활력이 골목

깊숙이 흐르게 해야 한다. 둘째, 지역 상생형 공간 배치다. 내부를 외부 상업 자본으로만 채울 것이 아니라 원도심 소상공인과 청년들이 공생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장소의 연속성 확보다. 나 홀로 솟아오른 랜드마크가 아니라, 원도심 골목의 숨결을 내부로 자연스럽게 끌어들이 기존 도심과 이질감 없이 섞이는 ‘확장된 원도심’으로 구현해야 한다. 도시재생은 눈에 보이는 수치에만 집착하는 물리적 행정이 아니다. 시민들의 삶이 유기적으로 얽힐 수 있는 매력적인 ‘무대’를 만드는 과정이다. 앞으로 100년을 내다보고 ‘조화와 연결’의 관점에서 원도심의 골격을 다시 세워야 한다. 탐동 도시재생 혁신지구가 아픈 역사를 넘어 원도심을 다시 뛰게 할 진정한 엔진이 되기를 기대한다.

열린마당

주방 안전, ‘관심’이 주재료입니다



김동우  
제주소방서 항만119센터

부를 타고 이동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소화기를 분사해도 진압하기 어렵다. 또한 덕트 안은 공기의 흐름이 빨라 연소 속도가 빠르고, 천장 내부라는 특성상 화재를 초기 발견이 어려워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주방 안전 레시피’ 세 가지를 당부한다. 첫째, 정기적인 배기덕트 청소는 필수다. 보이지 않는 덕트 내부까지 전문 업체를 통해 주기적으로 기름때를 제거해야 한다. 둘째, 기름때 제거 필터를 설치하고 관리하자. 유증기를 일차적으로 걸러주는 필터만 제때 설치·교체해도 덕트 내부의 오염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셋째, 주방 전용 ‘K급 소화기’를 비치하자. 식용유 화재에 특화된 K급 소화기는 기름 온도를 낮추고 산소를 차단해 재발화를 막는 주방의 파수꾼이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설 명절 앞두고 안전 점검의 날 운영

이용객 느는 시장 등 대상

만감류 유튜브 타고 전국으로

○…제주도는 지난 6일 설 명절을 앞두고 이용객이 급증하는 전 통시장과 다중 이용 시설의 화재·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 점검의 날’ 홍보 캠페인을 전개. 이날 캠페인에는 제주도와 제주소방서, 민간단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여해 제주시 동문 재래시장, 탐라문화광장, 칠성로, 지하상가 일원을 돌며 시설물 안전 취약 요소를 집중 점검하고 안내했는데 특히 콘센트 청결 상태, 소화기 비치 여부, 옥외 간판 고정 상태, 비상 통로 확보 등을 확인하며 분야별 안전 수칙을 홍보. 이와 함께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생활 속 위험 요인을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 앱 활용법을 안내하며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 전선회기자

○…서귀포시는 인기 유튜브버이차 청국장 가루 판매 100억 신화를 일군 황정연 신부와 서귀포산 만감류 판로 확대를 위한 홍보 영상을 촬영. 시는 유튜브에서 두터운 시청자층을 확보한 황 신부와 면담을 통해 서귀포시 농특산물 온라인 쇼룸몰인 ‘서귀포in장’을 소개하는 유튜브 영상 제작·홍보에 협력키로 하고, 지난 4일 서귀포 일원에서 1차 촬영을 진행한 후 영상을 게시. 시 관계자는 “1차 영상에서 황 신부는 레드함·한라봉 등 만감류의 특징과 우수성을 알기 쉽게 소개하고, 현장 시식 장면 등을 담아냈다”며 “설 이후에는 농가 방문, 재배·유통 과정 등을 담은 심층 콘텐츠 추가 제작도 논의 중”이라고 언급. 문미숙기자

사설

도정 3년 7개월의 기록, 도민의 평가는?

오영훈 제주지사가 민선 8기 도정을 운영하며 추구해 온 가치와 정책 방향을 정리한 책을 출간했다. 도정 3년 7개월의 기록을 담은 이 책은 지방 주도 성장과 제주 대전환, 민생과 미래를 주요 화두로 삼고 있다. 출간 시점과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재선 도전을 염두에 둔 정치적 행보라는 해석도 나온다. 제주도 정책을 책임지는 행정수장이 자신의 철학과 구상을 정리하는 일 자체를 문제 삼을 이유는 없다. 오 지사가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에 대해 공개적인 평가의 장을 여는 것 역시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 다만 오 도정에 대한 진정한 평가는 책이 아니라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민선 8기 도정은 10대 핵심 공약으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상장기업 20개 육성·유치, 청년 보

장제 도입,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기반 조성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이 도민들의 삶을 얼마나 개선했는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따른다. 경기 침체와 저임금 노동시장, 청년층 인구 유출 역시 뚜렷한 반전의 계기를 못 찾고 있다. 제2공항을 둘러싼 갈등 또한 현재진행형이다. 오 지사의 재선 도전이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요구되는 것은 다시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무엇을 이루었고 무엇을 이루지 못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솔직한 성찰이다. 오 지사는 책을 통해 정책을 설명하는 데서 멈춰서는 안 된다.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들이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 도민의 일상 속에서 어떤 변화로 나타났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그래야 도정에 대한 신뢰와 평가도 가능해질 것이다.

도의원 정수 유지 대중앙 교섭 강화해야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둔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가 최대 현안이 되고 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유지되고 있는 교육의원 제도가 6월말 일몰되면서 교육의원 5명을 선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일몰에 따라 도의원 정수는 기존 45명에서 40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에 제주출신 조국혁신당 정춘성 의원은 도의원 정수 45명을 유지하고 비례대표 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도의원 정수가 줄어들면 도민의 이해와 요구를 제대로 반영 못해 지방자치와 도민의 참여권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제주도의회도 지난 5일 정부와 국회에 향해 도의원 정수를 45명으로 조기에 확정해 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의결했다. 도의회는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제주에

는 기초의회가 설치되지 않아 도의회가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특수성을 인정해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난색이다. 가장 큰 이유는 타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다. 비례대표 의원 정수는 전체 의원정수의 10%로 규정돼 있는데 제주도의회만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할 경우 의회 구성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도의원 정수 45명 유지는 제주 미래와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다. 제주도의회와 제주출신 국회의원들은 연대해 도의원 정수 유지를 위한 대중앙 교섭을 강화해야 한다. 또 가장 큰 걸림돌인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 비례대표 의석 확대에만 급급하지 말고 지역구 의석 확대 등 절충안도 검토해야 한다.

상속한정승인 공고

• 피상속인 : 망 김도환(1994. 04. 02. 생)  
• 최후주소 : 제주시 첨단로동길 24, 202동 506호 (월평동, JDC제주첨단리슈빌)  
상속자는 2025년 10월 25일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은 2026년 2월 5일 제주지방법원 2025나단5906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수리 받았습니다.  
이에 민법 제10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채권자와 수증자는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은 자는 청산에서 제외됨을 최고합니다.  
- 다 음 -  
1. 신고기간 : 본 공고일로부터 2개월간  
2. 신 고 처 : 대우 동구 화령로 55, 306호(산천동, 동산아파트)  
송달정소: 대우 수성구 동대구로 354, 브라운스톤범여성가 505호 (범여동, 브라운스톤범여)  
송달영수인 : 전재우  
2026. 2. 9.  
공고인(상속한정승인자) 김경연

해산 및 채권신고 공고 (2차)

본 회사는 2024. 8. 1. 제주지방법원 2022가합12325 해산판결의 확정을 원인으로 2024. 8. 14. 해산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이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채권을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위 기간 내에 제출이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합니다.

2026. 2. 9.

주식회사 한라승강기

청 산 인 변호사 정서영  
채권신고처 : 제주시 남광북5길 10, 제이빌딩 303호,  
010-4983-7204

작명★택일★사주★운세★상담

- 운명과 삶의 흐름을 명쾌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 사주와 맞는 좋은 이름을 작명해 드립니다.

사주 명리학 수강생 모집

은퇴 없는 평생직장 역학상담사

1. 역학상담사 자격증반 2. 철학원 창업반(통변증성)  
※ 개인교습으로 수시모집

☎ 연락처  
동방철학원 064)759-4585  
(사)한국역술인협회 제주도지부장 문학림

칼라강판 조립식 건물

녹슬고 비새는 곳에

우레아

방수전문건설업  
석 주 개 발

☎ 782-3644  
010-4690-3636

모지 후손 찾기

토지 대장에서 주소 없이 이름만 등록되어 있는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상속자(주인)을 찾아드립니다.

후손 찾기 한달 이내 가능합니다.

○ 지목에 관계없이 모든 토지 후손 찾아드립니다.

○ 등기는 되어 있으나 주소가 바뀌어 소유자를 못찾는 경우

○ 소유권 이전 분쟁시 승소 가능 자료를 찾아드립니다.

묘지전문 제 주 토 박 이

제주누리 미등기 토지 연구소

신소장 ☎ 010-7305-7819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콜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명인 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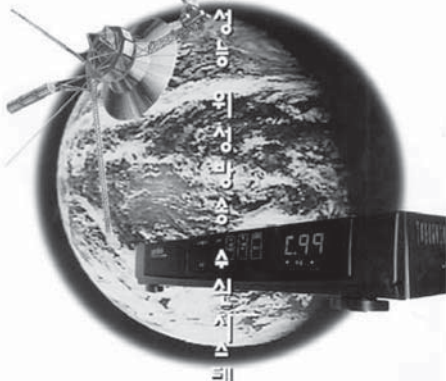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흘2리 양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제주 통신기반 구축

한라가 책임집니다.



하고 있는 일

- ▶ 키폰·교환기 설치 및 유지보수
- ▶ 건물구내통신 설비공사
- ▶ CCTV 및 공청 설비공사
- ▶ 통신전주건식(가입자부담공사)
- ▶ 네트워크 설비공사
- ▶ 전관방송 설비공사
- ▶ 광케이블 포설 및 접속공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제180008호) / ISO 9001 인증업체

한라전설(주)

대 표 : 현 문 찬  
제주시 삼도1동 539-1 신산스카이빌 104호  
☎ 753-0404 FAX.751-0045